

# 우찌무라간조(内村鑑三)의 생애와 사상

-에비나단조(海老名弾正)사상과 관련하여-

金文吉\*

(e-mail : mgkim@pufs.ac.kr )

---

## 目次

---

1. 서론
  2. 우찌무라간조의 생애와 활동
  3. 우찌무라간조의 비전(非戰)사상과 에비나 단조(海老名弾正)
  4. 우찌무라간조의 평화사상
  5. 조선의 무교회(無教会) 전래
  6. 결론
  7. 참고문헌
- 

## 1. 서론

우찌무라 간조(内村鑑三)은 明治時代 日本 프로테스탄트 기독교회의 대표적 인 지도자로 그의 사상의 독창적인 것을 연구할 때 일본 구미아이 교회(組合教会) 에비나단조(海老名弾正)요코하마교회(横浜教会) 우에무라마사히사(植村正久)를 손꼽을 수 있다.

굴지의 인물이란 것을 나타내기 위해 우찌무라는 3인을 평가하기를 요코하마 교회의 우에무라마사히사는 교회주의자, 구미아이교회의 에비나단조는 국가주의(國家主義), 자기 자신은 精神主義者라고 평가하는 것을 보아도 잘 알 수가 있다.<sup>1)</sup>

---

\*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본어과, 교수, 일본역사

1) 우찌무라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처럼 정신주의자라는 꼬리표가 붙여있는 것처럼 전후 연구하는 젊은이들이 수없이 많고 연구 업적만 열거해도 태산이다. 모두 열거하고 연구사를 정리하기는 힘든 형편이지만 다음과 같은 연구업적이 있다. 1960년대 우찌무라연구회에서 출판한 「内村鑑三 聖

일본사 가운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을 수 없는 봉건사회 체제를 잘 다져나간 사무라이 정치가 무너지고 서구 열방의 문호를 호응하여 새로운 체제, 明治維新기에 많은 사상가들이 태어나고 활동하는 시기에 우찌무라는 일찍이 일본적인 기독교 무교회(無教會)를 조직하여 전후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사상이 반열위에 올려놓고 많은 학자가 연구하고 있는 실태이다.

우찌무라가 유명한 사상가로 등단하게 된 동기는 자기 자신의 독특한 신앙과 사상의 뿌리가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구미아이교회의 에비나단조 즉 국가주의, 전쟁주의자 신도(神道)적인 사상가가 있었기 때문이다.<sup>2)</sup>

필자는 일본 기독교의 지도자로서 일본적인 “무교회”를 창출, 우찌무라가 전쟁기에 비전론(非戰論)을 주장하여 지금까지 세계인의 이목을 끌고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두한 일본이 낳은 사상가 중에 거물급인 우찌무라간조의 비전론에서 평화주의자로 활동한 우찌무라를 연구하는데 목적을 둔다.

## 2. 우찌무라의 생애

우찌무라는 1861년 3월23일 아버지 우찌무라 긴노스케(内村金介)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긴노스케는 에도막부의 하급사무라이의 한사람이었다. 그가 태어난 곳은 에도(江戸)다카사키(高崎)로 도쿠카와이에야스(徳川家康)가 막부를 세우고 막부 체제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 무사들의 자녀를 모아 양성하는 교육의 도시이기도 하다. 당시의 무사들의 자녀교육은 유교였다. 유교가운데서 실학사상을 중심으로 서당공부가 전부였다. 에도시대 서당은 데라꼬야(寺子屋)였다. 우찌무라 아버지는 우찌무라간조를 유교 교육을 받아 남달리 막부중심의 사무라이로 키워보겠다고 열심히 서당에서 글을 가르쳤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수용사에도 찾아볼 수 있지만 일본의 초대기독교를 받아들인 계급의 신분들은 모두가 사무라이 가정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우찌무라도 사무라이 가문에서 자라 유교사상의 서당공부를 열심히 하던 중 일본에도 서양문물이 들어와서 기독교가 전래되었다. 명치유신이 일어난 후 일찍이

書註解全集」17券이 教文館에서 출판하게 되어 우찌무라 연구가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일본기독교 사상사, 일본사에 지명도가 높은 關根正雄이 「内村監三」이라는 연구서가 1967년도에 清水書院 출판함으로 일본사상사 연구에 우찌무라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어서 일본역사가로 알려진 熊野義孝 「日本キリスト教神學思想史」에 “内 監三의 信仰, 思想論評”을 출판하게 되어 우찌무라 연구회의 핵심이 되어 이 모임을 이끌게 되었다. 이외에도 오늘날까지 많은 연구가 쏟아져 나오는 실정을 감안할 때 우찌무라는 일본사상사 중의 사상가이다.

2) 출처 「근대일본 기독교와 조선- 에비나단조의 사상과 행동」 1998.6.24 9p 明石出版社

서양문물의 신학문의 학교가 여러 곳에 세워질 때 우찌무라는 기독교학교인 삿포로(札幌)농학교에 들어갔다. 삿포로 농학교는 미국 선교사 클라크(w.s.clark)란 선교사가 학교를 세웠다. 3)

클라크는 원래 농학박사로서 명치정부에 위탁받아온 선교사이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넘어갈 것은 우리나라 선교는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를 불러 들어와서 선교가 되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명치정부가 정책적으로 초빙하여 기독교가 전래되었던 곳이 많다.

삿포로 농학교도 마찬가지로 이지만 구마모토 선교도 서양양학교(西洋洋学校)를 세우고 귀족의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초빙되어온 선교사들이었다. 삿포로는 명치유신 때 까지는 일본열도에서 제외된 지역이었다. 다시 말해서 일본사람들이 삿포로를 자기 나라라고 생각지 않았다. 명치유신 이후 일본정부가 개척지로 삼고 농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불렀던 것이다. 삿포로 즉 홋카이도(北海道)뿐만 아니라 오키나와(沖縄)도 마찬가지로 개척된 시기는 명치정부가 들어선 이후 부터였다. 그곳을 동시에 개척할 때 정한론(征韓論)을 내세워 조선도 동시에 東洋開拓이란 차원에서 침략을 시작했던 것이다.

우찌무라가 江戸인 도쿄에서 개척지인 홋카이도를 간 의도는 홋카이도 개척자인 클라크 선교사에게 생물학을 배우기 위해 떠났던 것이고 나중에 꿈은 홋카이도를 자기 나름대로 신도시로 만들어보겠다는 원대한 꿈을 안고 갔을 것이다. 그곳에서 공부한 우찌무라는 사회적인 학문과 원대한 꿈은 점차 식어가고 클라크가 전하는 기독교 정신에 심취되어갔다. 결국 1879년 클라크 밑에서 세례를 받고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었다. 1884년 삿포로 농학교를 졸업한 우찌무라는 기독교사회에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미국 애머스트대학과 하트포드신학교(HTS)에 입학하기 위해 미국으로 갔다.

미국에 도착한 우찌무라는 어느 누구보다 기도생활과 장차 일본을 선교하려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였다. 미국 하트포드신학은 성서경감설과 복음주의신학을 주장했던 보수적인 면이 강했다. 4년간의 미국생활은 우찌무라에게는 장차 일본에서 일하고자 하는 학문적인 기반과 교회선교의 전략을 확실히 다지고 1888년에 귀국했다.

우찌무라가 미국서 공부하고 있는 4년 동안 일본의 정국은 눈부실 만큼 달라져 있었다. 무엇보다도 천황제 국가의 법적기구가 확립되어 1890년 10월30일에

3) 일본은 외국선교사가 선교할 때 지역을 배당 받아 선교했다. 이런 방법은 한국에도 최초로 선교할 때 지역분담제였다. 일본은 3곳을 나눠서 선교하고 대표적인 기독교인재를 배출했다. 삿포로는 클라크의 중심으로 우찌무라를 배출하고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브라운(S.R.Brown)이 선교하여 우에무라 마사히사를 배출했다. 그리고 구마모토(熊本)가 중심이 되어 젠즈(L.L. Janes)가 선교하여 구미 아이교회 에비나를 배출했다. 이 3곳을 3반도의 기독교선교라 한다. 반도라는 말은 벨트(Belt) 즉 지역이란 뜻인데 일본발음으로 반도라 한다.

“교육칙어(教育勅語)”가 내려졌다. 교육칙어는 두 가지 측면의 정서적인 면에서 내려진 것으로 안으로 일본국내의 자유민권 운동 억압과 밖으로는 정한론에 대비한 범국민적 정신함양이었다.

교육칙어의 초안은 앞장에서 이미 이야기 했던 바와 같이 구마모토 양학교(西洋學敎)에서 공부한 모도다에이후(元田永孚)와 이노우에고와시(井上毅)였다. 이들은 물론 구마모토 양학교에서 공부하고 천황제국가의 봉화불을 당긴 “하나오카(化岡)사건”의 인물이었다.<sup>4)</sup>

교육칙어의 내용은 위(국가)로는 충군애국(忠君愛國)정신을 가르치는 것이고 아래(국민)로는 가부장제도(家父長) 즉, 가족전제(家族專制)교육이다.

중국 애국정신이라는 것은 “군(君)”은 천황의 호칭으로 천황을 절대 존경, 절대복종이란 것이고 가부장 제도는 집에서는 어른을 섬기는 것이고 사회에서는 남녀노소 구별을 뚜렷이 하자는 것이다. 교육칙어가 내려져 각 학교에서는 천황사진과 교육칙어의 이념을 벽에 나란히 걸어놓고 학생들로 하여금 조례와 종례시 반드시 이곳에 절을 하도록 교육시켰던 것이다.

우찌무라는 미국에서 귀국하여 생물선생으로 도쿄 제일고등학교(지금은 동경대학전신)에서 교직 생활을 했다. 특히 교육칙어가 내려질 때 어느 교사보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우찌무라는 모든 선생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고 교육칙어를 외우고 천황사진에 참배시키는데 우찌무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뒤에 있던 학생 중 하나가 교실 문을 박차고 나가 경찰서에 우찌무라를 고발했다. 우찌무라는 자신이 지도하는 제자들에 의해 고발당했다는 것은 그 당시 일본국민들의 정서생활이 어떠했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1891년 4월20일 우찌무라는 고발당해 경찰서에 연행되었고 그 후 교직생활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이것이 일본 근대사에서 “우찌무라간조의 후케이 사건”(内村鑑三 不敬事件)이라 한다. 하루아침에 백수가 된 우찌무라는 도쿄, 교토, 오사카 등, 일본 열도를 다니며 “그리스도의 재림”과 “말세사상”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포교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가 미국에서 배운 복음주의신학 즉, 조직신학을 기반으로 하여 일본 현실 사회를 폭로하는 「기독교도의 위로」라는 책을 통하여 우찌무라의 신앙사상과, 일본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서 대해서 많은 호응과 국민들의 지지를 얻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일본인의 정서에 새로운 국가의식을 심는 애국심 “二의 J”를 제시했다.

4) 하나오카 사건은 구마모토 양학교 예비단조를 선두로 해서 명치국가(천황제국가)를 만들어 나아가자는 단체. 이 사건은 무력행위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일어나서 구마모토 양 학교는 폐쇄되고 임원들이 교토 도오지사 영학숙(京都) 同志社 英學塾에 들어갔다.

“ I for Japan, Japan for the World  
The world for Jesus christ and all for the God”<sup>5)</sup>

이라 선포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일본을 위하고, 일본은 세계를 위한다.

세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라는 일본국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동시에 가르치는 운동으로 유명한 말이 되었다. 지금도 우찌무라간조의 묘의 비문은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

우찌무라는 일본을 남달리 사랑하지만 천황제국가 천황을 우선으로 섬기는 이상숭배사상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위치에서 일본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의 시민운동과 겸하여 기독교정신을 심었다.

1900년 2월 아시오 광독사건(足尾鉬毒事件)에 힘을 기울였다. 아시오 광독사건은 에도(江戸)시대부터 일본광산으로 유명한 곳이다. 아시오 광산에서 생산되는 철(鐵)은 근대 일본 문명을 눈부시게 발전시켰다. 철의 생산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폐수가 도치키현(栃木県) 군마현(郡馬県) 사이다마현(埼玉県), 지바(千葉県) 도쿄(東京)등 여러 지역의 하천을 오염시켜 농민들의 농사뿐만 아니라 심지어 폐수에 의해 죽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철의 생산은 국가가 장악했기 때문에 아시오 철광에서 배출되는 폐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할 때 우찌무라는 『만조보(万朝報)』를 통해서 국민건강의 해악을 고발하며 군중 속에 직접 뛰어 들었고 환경운동에 불을 지핀 최초의 인물로 활약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러 전쟁의 부당성 즉 “비전론(非戰論)을 내세워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두각을 나타낸 우찌무라는 많은 인재를 양성하게 되었다. 사회정치면에서 오스키사카에(大杉栄)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회주의자들이 나왔으며 문학자로서도 구니끼다도쿠호(国本独歩)를 비롯해서 수십 명이 등장하여 일본 근대문학의 획을 긋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 유학생인 김교신(金教臣)도 우찌무라간조의 사상을 본받아 조선에 우찌무라간조의 종교 “무교회(無教会)”가 생겨 오늘날에도 중국, 대만, 한국, 아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의 “무교회”가 있고 신자수만해도 상당히 많은 편이다. “무교회”도 서양제국 국가에서는 일본어 그대로 “Mukyokai”라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많은 세상에 많은 업적과 뿌리 깊은 사상을 심은 우찌무라 였고 세계적인 무교회를 창시한 우찌무라는 1930년 3월28일 서거하였다.

5) 졸저 「内村鑑三의 平和思想과 조선 무교회의 동향. 아시아기독교 다원성」 제26호 129p 京都大 아시아 기독교 연구회 2004.3

### 3. 우찌무라 간죠의 비전사상(非戰思想)과 에비나 단조

우찌무라의 사상은 앞에서 지적한바 있지만 러·일전쟁에 있어서 일본구미아 이교회(組合同教會)에비나단조의 “전쟁론”과 “성전(聖戰)”에 대치되는 입장에 섰기 때문에 우찌무라의 “비전론”이 성립되었고 일본이나 세계에 널리 알리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에비나가 존재했기 때문에 우찌무라가 존재했고 우찌무라가 존재했기 때문에 에비나가 존재하는 양존양론(兩存兩論)의 대립자가 되었다. 에비나의 “전쟁론” 우찌무라의 “비전론”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兩論의 의미를 연구해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전쟁론”자의 입장인 에비나단조(6)와 “비전론”자인 우찌무라 간죠는 모두가 기독교 지도자로 목사였다. 성경에 보면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마26:52)에도 기록되어있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5:44) 등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인간을 사랑하고 인류평화 사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비나단조는 전쟁의 정당성에서 “성전(聖戰)”을 외치고 우찌무라는 절대적으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비전(非戰)을 외친 것이다. 이런 사상의 대립은 일본 명치국가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또는 어제 오늘의 단순한 문제로 처리할 수 없는 전쟁 병역거부 문제들이다.

베트남 전쟁, 중동전쟁, 아프간 전쟁, 남북한 문제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전쟁이 있었고 앞으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언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는 것 인가. 멀리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본다면 4세기의 콘스탄티 누스 대제에 의해서 제정된 즉 콘스탄티 공회 회법 이전에는 고대 교회에 있어서는 절대 평화주의 병역거부였다. 기독교가 국교로 승인된 이후(16~17세기)는 전쟁을 긍정하고 병역을 의무화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그러나 반대했던 소수파는 그때나 지금이나 전쟁반대와 병역거부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우찌무라는 원래 “비전론”자는 아니다. 일·청 전쟁 때는 기독교지도자 중에서 누구보다 전쟁의 타당성을 주장한 사람이다. 일청전쟁이 박두할 때 그가 쓴 「地人論」을 영어로 써서 미국사회에 알리고 다시 1889년 「日本国の天職」이라는 책을 일본어로 써서 일본국민들에게 알렸다. 그의 집필에서 그가 생각

6) 에비나단조 연구는 지금까지 우찌무라 연구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편이나 최근에 연구된 것은 吉馬川明子 「海老名彈正의 政治思想」(1982)  
 출처 「近代日本キリスト教と朝鮮-老名彈正의 思想과 行動」(1998)이 있다.

하는 일본은 “조그마한 섬나라의 일본은 강한 서구나라가 언제 침범해 올지 모르니 군사를 강화하고 強兵大國, 군비를 비축하여 국토방위에 힘쓰자” 라고 주장했다.

이런 생각은 후쿠자와유기찌(福沢諭吉)의 脱亜入歐 사상과 일치되는 점이고 당시 일본지식인들의 대다수가 일본이 아시아를 벗어나서 서구사회의 침략을 막고 서구사회를 지배하자는 견해였다. 우찌무라는 다시 「清日戰爭의 義」란 제목으로 청일전쟁에 기여하는 책자를 펴내 화재거리가 되었다. 이 책을 다시 영어로 번역하면 「Justification of the Corean War」라 하고 미국사회에 알렸다.

그가 주장하는 내용은 “공자맹자의 나라 중국은 이미 저물어가는 해와 같다. 고풍을 고집하여 문명을 모르고 있다. 세계를 알리고 문명국으로 만드는 것은 대국인 일본에게 있다. 이것이 일본국의 사명이다” 하고 주장하면서 일본의 국위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일본인은 일등국민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느끼고 있고 못사는 나라 중국과 조선을 일깨워 주는 것은 일본의 사명인 줄 생각했다.<sup>7)</sup>

다만 우찌무라는 국수주의자가 아니고 국권주의자도 또는 부국강변자도 아니다. 다만 공자의 사상을 버리고 기독교정신을 심어 문명국을 만드는 것이 기독교 국가인 일본의 사명이라는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일청전쟁을 막상 당하고 겪어봤던 우찌무라간조는 그의 주장을 전부 바꾸게 되었다.

1896년 5월22일 미국에 사는 친구 베루(Belu)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중국전쟁은 끝났다. 무사히 끝난다고 한다.” 義戰化 “는 부끄러운 마음 금지 못하겠다.” 라고 적고 우찌무라 간조는 청일전쟁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다.<sup>8)</sup>

우찌무라는 적어도 그가 주장했던 청일전쟁은 중국은 사랑하고 문명국가로 만들어야 하는 꿈을 가지고 청일전쟁을 주장했으나 전쟁이 바로 사람을 죽이고 중국을 지배하면서 인권을 유린당한 처사를 볼 때 해적들이 하는 행위처럼 보여 가슴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그는 일·로 전쟁에는 “비전문자”로서 “전쟁론자”와의 싸움이 시작된다.

우찌무라가 전쟁반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을 때 구미아이교회<sup>9)</sup> 에비나단조

7) 田畑忍의 「内村鑑三에 있어서 平和主義 思想 の 展開」 27p 동지사대학 사회문제연구소, 1979

8) 출처 109 p

9) 일본 구미아이교회의 일본선교는 1886년 4월에 미국회중교회(congragation church) 선교사가 관서(關西)지방에 선교하여 교단이 처음 생겼다. 명치시대 때 여러교파가 합하여 일치교회(一致教會)가 생겨나 일치교회에 가입하지 않고 독자노선을 걸었다. 초대 회장은 고자기히로미찌(小崎弘通) 다음은 에비나 단조였다. 명치 신신학 운동에 가담하고 1895년 나라(奈良)대회 때는 조선전도에도 힘을 쏟아 부어 교파가 크게 활성화되었다.

는 1894년 5월2일 구미아이교회 총회가 오사카 청년회의소에서 열렸다. 총회는 전쟁을 앞두고 모두가 어수선할 때라 모든 회원이 긴장된 상태였다. 에비나 단조는 그때 총회장의 신분으로 대중 앞에 설교를 하였다. 설교제목은 “사슴을 中原에서 쫓아내자”는 제목이었다.

사슴은 서방 여러 국가를 의미하고 中原이라 하는 것은 중국을 가리켰다. 그때 설교 내용은 “어떤 외국인 말하기를 중국을 지배하는 것이 세계를 지배한다. 중국의 문제가 세계의 문제가 되고 영국, 일본, 러시아, 블란서, 독일, 미국이 중국에서 싸워야 한다. 이것은 오로지 경제적인 문제보다 종교적인 문제가 더 많이 대두된다. 불교, 유교, 예수교, 회회교 세계의 4대 종교가 싸우는 것이다.”<sup>10)</sup>

원래 달변가인 에비나단조는 그때는 더욱 힘을 내어 설교할 때 모든 회원이 감동을 받고 일제히 전쟁에 동참하고 전쟁을 위해서 특별기도회도 가졌다.

목사의 신분으로 교회에서 전쟁기도가 계속되는 구미아이교회를 본 우찌무라간조는 전쟁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목사가 전쟁을 치르기 위한 기도와 전쟁에 보낼 위문품을 모으고 헌금을 하는 것을 볼 때 「내가 비전문가가 된 이유」를 밝히며 일본열도를 다니면서 전쟁에 반대하는 설교를 하였다. 그가 전쟁에 반대하는 이유를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성서에 전쟁을 하지 말라고 되어있다. 또는 십자가의 복음이 때에 따라 전쟁을 허용했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둘째, 무저항주의가 승리했다는 경험에서

셋째, 일청전쟁이 결국 有害無益이 되었다.

넷째, “The springfield Republican” 이라하는 미국 신문에서 平和主義的 주장과 평화주의의 논설에서 감화를 받았다. <sup>11)</sup>

이런 4가지 이유에서 우찌무라는 비전문가에서 에스카레트해서 전쟁절대반대자가 되었고 교인들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전쟁에 나가면 대 죄악이라 했다.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와 전쟁에 동참하며 동조하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죽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다시 신약성경 마태복음26장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라는 예수의 말을 인용해서 당시 예수를 잡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기 위해 군병들이 예수께

10) 출처 108 p

11) 内村鑑三 『萬朝報』1903. 6.30



다가올 때 예수와 함께 한 한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잘라 떨어뜨리고 예수님께서 그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는 것을 인용하면서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것은 예수님께서 말렸지 않느냐 전쟁은 필연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십계명에 분명히 나오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5:44) 예수는 절대 사랑이 아니냐.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려는 전쟁을 부르짖느냐 이웃인 중국을 사랑하고 이웃인 러시아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신약성서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단편으로 보여주는 것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가운데 이사야 란 선지자는 싸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피해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사2:4) “이 나라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아니하리라”<sup>12)</sup>는 기도를 상기하면서 이 지구촌에 전쟁이 하루빨리 물러가고 전쟁이 없는 시대가 오기를 우찌무라는 간절히 기도했다. 또 우찌무라는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앴고 구약성서에 기록된 선지자 스가랴가 기도한 ”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찌무라의 기도가 일본과 러시아의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고 평화의 날이 오기를 기다렸다.

결국 우찌무라는 성경을 인용해서 전쟁 절대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이때 전쟁 절대론을 주창한 예비나는 일러 전쟁을 앞두고 전쟁의 필연성을 주장하면서 1904년 4월에 그간 편집한 『新人』이란 잡지에 “성서의 전쟁주의”란 글을 발표하였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서에 있어서 전쟁을 부인한 곳은 한곳도 없다. 생각하기에 달렸다. 세례요한을 보라 당시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군인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도 로마 군인들이 찾아오지 아니하였는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직업을 버리라고는 하지 않았다. 사도행전에도 로마 군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였느냐 신약성경에 한곳도 전쟁을 하지 말라는 곳이 있느냐. 나는 한곳도 전쟁을 치지 말라는 곳을 발견하지 않았다.<sup>13)</sup>”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인 구약성서를 보라. 모두가 전쟁이고 전쟁사가 아닌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여호수아란 유명한 장군이 있었지 않느냐. 여호수아는 군복을 입고 전쟁의 필

12) 우찌무라 간조 「新希望」 명치 38년 10월10일 61.p

13) 예비나단조 「성서의 전쟁주의」 『新人』 제5권 4호 6p .1904년 4월

요한 무기로 단장하였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두가 군대 장병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시로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 성을 쳤지 않느냐. 그때 장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작전을 지휘해서 무사히 강한군대 여리고 군대를 물리치지 아니했는가.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는 점차 전진하면서 전쟁을 치고 결국 가나안땅 하나님의 땅 복지의 땅을 건설하지 않았는가. 우찌무라 간조의 성서 인용으로 전쟁을 반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것이다.<sup>14)</sup> 라고 말했다.

에비나는 “성서전쟁주의” 에 한층 더 조직적인 것은 군 입대 장병들에게 권유하는 설교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학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엡 6:13~17)

파병하는 장병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육신의 무장과 정신의 무장을 같이 필승<sup>15)</sup>을 다짐했던 것을 보나 우찌무라와 에비나의 성경적 논쟁은 신앙의 뿌리와 그들의 가지고 있는 조직신학에서 찾을 수가 있다.

우찌무라는 미국에 에머스트대학과 하트포드신학교(HTS)에서 복음적인 신학을 배워 보수적인 입장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비전론자에서 절대 반대하는 자가 되었고 에비나 단조는 미국 회중교회가 선교한 자유주의 신학과 구마모도양학교의 켄즈 선교사에게 배운 국가주의사상이 결합되어 에비나단조 나름대로 전개시킨 신학이 “성서전쟁주의”였다.

명치시대 일본은 어느 교단과 교파에서 일률적으로 받아드리지는 않았지만 개개인의 신앙 일부신학교에서는 신 신학이 유행이 되었다. 당시 신신학은 미국사회에서 들어온 “유니테리안” 신학사상이었다. “유니테리안” 신학사상은 당시 지도자들에게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았다고 하니 에비나단조도 그 중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우찌무라 간조는 일본국내에서는 도쿄 제일고등학교에서 물러나와 전쟁을 반대하는 자 중 절대반대자 였고 사회주의자와 정치 문화인을 모아 일본적인 무교회회를 조직하여 해외에는 평화주의자로 전환하게 되었다. 우찌무라의 무교회는 우연히 생겼고 조직된 것은 아니다. 에비나 교회에 대치되는 교회가 무교회였다. 전쟁을 주장하는 에비나의 구미아이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이고 교회도 매우 웅장했다. 모이는 집회 때 마다 전쟁의 필승을 다

14) 졸저 112p

15) 상동

지는 기도이고 전쟁을 옹호하며 지지하는 설교였다. 당시 일본의 기성교회는 모두가 전쟁을 위한 모임의 교회였고 드리는 헌금이 위문금이 되었다. 잘못된 기성교회를 향한 반기를 든 것이 당시의 무교회였다. 교회는 교회당이 없어야 하는 것. 모이지 않도록 하는 것.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교회가 무교회였다. 16) 이때 무교회의 신앙노선에 조선인으로서는 김교신을 들 수 있고 조선에도 무교회가 조직되어 평화사상을 주장하는 인재를 양성하였다.

에비나의 경우는 전쟁 절대주의자 “성서 전쟁주의자”로 일본적인 기독교 신도적 기독교로 변질되어 일본적인 기독교가 해외로 진출 되었다.

#### 4. 우찌무라간조의 평화사상

우찌무라의 신학사상은 전쟁 절대반론을 전개하는 가운데 러일 전쟁이 끝날 무렵 한층 심화하여 “세계 평화사상”으로 전개시켰다.

한편 에비나 단조도 그가 주장한 “성서전쟁주의” 사상이 날로 높아가는 가운데 자기 자신의 신학을 제창하여 기독교 신도사상에 귀인하게 되었다. 그가 주장하는 신도적 기독교는 성서에 명기된 하나님의 말씀(요한복음1장1절)과 日本의 魂(일본 다마시)를 접목시켜 神道的 기독교(일본적 기독교)로 변신하게 된다. 즉 겉으로는 보통 기독교로 보이지만 안으로는 일본신도인 것이다. 러·일 전쟁은 일본국의 승리로 끝날 무렵 에비나자신도 희귀하게 생각함으로 일본의 혼(야마도다마시)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더 우회로 생각했다.

유럽의 기독교의 말씀(혼)이 세계로 전개한 것처럼 일본의 혼도 세계를 향하여 나가야한다고 한일합방을 눈앞에 두고 한일합방은 하나님이 우리 일본에게 주신 선물이고 일본국이 한국을 지도하여 문명국으로 만드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일본은 종래의 섬나라의 인식을 버리고 신국흥민(新国興民)의 기상을 부활시켜야 되고 대 일본국의 장래는 아침에 해가 동두천에서서 떠오르는 것 처럼 한국인은 이 영광에(한일합방) 참여하여 일본국민의 이름을 받고 신국(神国)의 이름을 받아야 한다. 일한(日韓)합병을 찬양<sup>17)</sup> 해야 하고 또는 에비나는 “일한 민족은 동일민족이고 동일국민이다. 그러나 外国선교사는 합동하여 단결해야 하고 일본은 신국(에비나의 신도적 기독교)사상을 지상에 건설해야 하는 큰 사명을 가지고 있다 18) 고 하면서 에비나단조의 “신도적 기독교”의 입장에서

16) 근대사상연구회 「우찌무라 간조의 말」 168p 신문학서방 쇼와 52

17) 에비나 단조 「韓日合邦을 축하하다」 『新人』 11권 9호, 1910

일본의 혼의 팽창론을 주장했다.

이때 우찌무라는 말하기를 “나라를 얻었다고 즐거워하는 민족이 있는가하면 나라를 잃었다고 슬퍼하는 국민이 있다. 그러나 즐거워하는 것도 일시적이고 슬퍼함도 일시적이다. 만약 전 세계를 획득했다 해도 그 영혼이 상실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약 우리 영토가 팽창하여 세계를 얻었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이 상실하며 슬픔이 더하리라.<sup>19)</sup>

에비나가 영토를 확장하는 것은 일본”신의 건설“ ”신의 나라“라고 하지만 실은 우찌무라 간조는 ”신의 나라“라는 것은 신자가 신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노력에 의해 건설되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 피조물이 새로워지는 것이 ”신의 나라“요 ”성국(聖國)“이라 하고 에비나의 신국사상에 공격하는 것이다. 에비나의 ”신의 나라“를 육신적인 형이하학(形而下學)적인 사상이고 우찌무라의 경우는 형이상학(形而上學)적인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위에 오신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견대립 속에 우찌무라의 신의 나라 설립은 예수의 재림을 주장하는 ”예수 재림, 평화 사상“을 이 지상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의 평화사상은 이스라엘 민족의 재림 사상 즉 이사야1장 4절~6절에 보면,

“슬프다 이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상한 것과 터진 것과 매로 맞는 흔적 뿐 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어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sup>20)</sup>

우찌무라의 평화사상은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오므로 평화가 깃들고 평화가 바로 신의 나라이라고 믿고 있었으며 지상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를 인간이 기도하고 노력하여야 한다는 즉, 이스라엘의 황폐한 민족과 국가위에 새로운 국가관을 심기위해 이사야란 선지자가 나타났던 것처럼 일청전쟁, 일러전쟁, 제1차 전쟁시에 폐자국이나 승자국이나 모두가 범죄한 나라요 행위가 부패한 민족이라 지적하고 먼저 그가 주장한 평화사상은 영국,독일,이탈리아, 일본 등 모든 나라에 “無軍備主義”를 제창했다. “무군비주의”는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비축하지 말자는 운동이다. 우찌무라 경우는 에비나와 다른 점은 위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재림사상의 평화주의, 아래로는 군비주의 타파였다.

18) 졸저 153p

19) 졸저 151p

20) 우찌무라간조 「성서의 연구」 p.4 1917년 8월

오늘날에도 전쟁반대 평화주의 사상운동은 어느 나라에서나 찾아볼 수 있고 자주 일어나는 지상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찌무라처럼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인 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5. 조선의 무교회 전래

러·일전쟁이후 예비나단조의 신도적 기독교가 조선에 전래되어 총독부와 결합함으로써 교세는 날로 확장되어 갔다. 기성교회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교회수가 많아졌고 일본구미아이교회 지도자들도 조선에 많이 파견되었다. 당시 예비나단조가 파견한 와다세 쓰네요시(渡瀬常吉)가 전도책임주임이었다. 일본적인 기독교 신도적 기독교를 전하기 위해 京城学堂이란 일본학교를 만들어 친일사상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 일제 감정기에 친일파는 거의 일본 구미아이교회, 예비나단조의 영향이었다.

한편 우찌무라 간조의 평화사상도 식민지 조선을 거쳐 아세아에 전래되었다. 조선의 우찌무라 간조의 무교회가 전래된 것은 황해도 해주 출신인 金貞植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일찍이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신자가 되어 황해도 YMCA에서 일을 하던 중 1906년 일본 YMCA에 출장을 갔다. 도쿄거리에서 강연하는 평화주의자 우찌무라 간조를 만나 무교회의 신앙과 평화사상에 깊은 감명을 받아 귀국 후 최초의 조선 무교회 신자가 되었다. 그후 일본에서 우찌무라 간조를 만나 신자가 된 인물들은 金教臣, 柳永穆, 咸錫憲, 朱斗用 등 여러 일본 유학생이 있었다.

金貞植이가 최초 신자였을 뿐 우찌무라 간조의 무교회 사상을 조선에 심고 조선 무교회가 생긴 것은 함경남도 함흥 출신 金教臣이었다. 김교신은 1920년 우찌무라 간조밑에 공부하여 1927년 귀국하여 조선에 최초로 조선 무교회의 모임이 시작되었다. 그가 우찌무라 간조에게 배운 것은 예수 재림사상과 평화주의사상을 듣고 감동을 받고 우찌무라가 쓴 「求安錄」을 읽고 깊게 감화를 받아 무교회 신앙을 알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다.<sup>21)</sup>

김교신은 무교회지도자로 일하면서 함흥여자 고등학교 지리교사로 교편생활도 하였다. 우찌무라의 「성서의 연구」잡지를 펴내 많은 사람들이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 중에 김교신도 감화를 받아 귀국하여 우찌무라와 똑같은 성격을 지닌 「성서조선」이란 잡지를 펴내게 되었다. 창간호의 취지를 보면

21) 출처 「우찌무라 간조의 평화사상과 조선무교회의 동향」 『아세아, 기독교, 다원성』 126p 교토 대학 현대기독교사상회, 2004

“나는 무교회주의란 것을 넓은 의미로서는 정신적인 면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구약신약성서를 관통하는 정신, 그리스도, 바울, 루터의 정신. 또는 우주에 깎차있는 정기(正氣)를 풀기 위함입니다. 나의 무교회란 것은 진정한 기독교를 의미하는데 있고 무교회란 것은 진정한 크리스찬을 의미하는 것이다. 교회가 있고 없고, 세례를 받던 안 받았던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무교회주의는 복음주의 신자이다. 나의 무 교회는 우찌무라간조 선생께 배운 ”최선“(最善) ”최미“(最美) ”최고“(最高)란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신자의 정신이고 신앙이다. 구원하신 예수를 명확히 아는 무교회주의자의 사명이기도 하다. 22) 그는 무 교회 신앙만이 구국하는 길이고 무교회 정신만이 나라를 진정 사랑한다는 정신이라 하고 우찌무라 간조의 나라사랑인 ”二的 J” 즉

“ I for the Japan, Japan all the World, The World for Jesus christ and all the God”

다시말해서 나는 일본을 사랑한다. 일본은 세상 모든 민족을 사랑한다. 세상 모든 민족은 하나님과 예수를 사랑한다.

라는 사상을 닮아 김교신의 무 교회 국가관은

“Bible and Korea, Bible to Korea, Korea on Bible”

”성서와 조선, 성서를 조선에, 조선은 성서 위에”란 슬로건을 걸고 민족주의자가 되어 민족교회에 앞장선 것이다. 그는 안으로(국내)는 민족교육 밖으로(일본총독부)는 독립운동의 전력을 기우렸다.

1930년 “황민화” 반대운동 “內線一致” 반대 “신사참배”반대 등 김교신의 무 교회가 일치단결하여 조선총독부와 정면으로 싸우게 되었다.

1942년 3월30일 일본경찰에 연행되어 심문을 받을 때 「나는 그리스도와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조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황국시민서사(皇国市民誓詞)는 후일에 망국시민서가 될 날 이 올 것이다. 23) 라는 예언을 자주한 바 있다. 김교신은 우찌무라 간조의 사상과 같이 이사야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예언했던 평화주의자로 연계한 것이 조선이고 『성서조선』이었다. 」

당시 총독부는 김교신의 무교회 일파를 눈에 가시와 같이 여기고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탄압이 가할수록 무교회의 세력은 날로 높아가면서 일반인의 왕래가 전혀 없는 전남 고흥군 소록도 한센병원에 사는 한센 병 식구들에게 까지

22) 김교신 『성서조선』 창간호 1927년 7월호

23) 유달영 「김교신과 조선」 162p. 『김교신과 한국』 김교신 저작집 간행 1972

무교회가 전해졌다. 24)

김교신의 무교회는 인간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성서를 절대 신봉하는 신조를 배운 소록도 한센병 환우들은 김교신을 구세주로 착각할 만큼 믿음을 가졌고 많은 환우들이 “성서조선”을 탐독했다.

그중의 한 신자는 김교신의 위대함과 선교에 힘을 더 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1935년 6월 14일자 편지에

“ 오! 선생이여 오직 당신만은 썩어진 교과사상에서 초월하여 계심을 나는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오직 홀로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있고 탈선 신앙가들의 핍박에서도 오히려 매진하고 있는 용사임을 선생의 사상지인 아니 신앙의 표현인 聖朝(성서조선의 준말)를 통하여 알고 남았습니다.” 라는 신앙을 간증한 편지가 있었고 전국적으로 많은 이들의 간증의 편지가 “성서조선”에 수록되어 있다.25)

당시 김교신의 “성서조선”을 “성조”라 했고 김교신의 이름이 “성조선생”으로 통했다.

일제강점기에 눈에 가시와 같이 여긴 총독부는 1942년 3월에 「성서조선」을 폐간시켰다. 폐간이유는 「성서조선」 158호에 “부활의 봄”과 “우물의 개구리”란 제목이 치안법에 저촉된 것이다. ‘부활의 봄’과 “우물 안의 개구리”는 김교신의 글로 천황제국가가 폐망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온다는 글의 내용이 었다. 김교신은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무기형을 언도 받아 수감 중이던 1945년 4월18일 아침에 안타깝게도 조국의 광복을 끝내 보지 못한 채 형무소에서 서거했다.

한편 에비나단조의 일본적인 기독교의 조선전도는 1919년 3.1 민족독립운동이 일어날 즈음 교세의 확장으로 천황제국가의 많은 공천을 하였지만 에비나단조가 죽은 후 교세는 점점 약해지고 渡瀬常吉은 조선인 柳一宣에게 교단을 맡기고 귀국하여 1945년 일본은 패전을 맞이했다.

## 6. 결론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명치시대 기독교 지도자로서 손꼽을 수 있는 사람으로

24) 줄져 『일제통치하에 있어서 조선 무교회의 양상고찰』-김교신과 소록도- 403p 『일본문화 학보』 제28호 한국 일본문화학회

25) 김교신 『성서조선』 77호, 1935.6월 1일

에비나단조와 우찌무라 간조였다. 이 두 사람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이다. 그들이 두각을 나타낸 것은 러일전쟁 때이다. 국가주의자 에비나단조는 러일전쟁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성전”이라 생각하고 전쟁을 위한 온갖 힘을 기우렸다. 우찌무라간조는 에비나의 전쟁사상은 성경에 위배된다며 “전쟁반대”를 전개시켜 “비전”에서 “절대반대”로 정면으로 맞서 싸웠다. 러일전쟁이 승리로 에비나의 신학은 “신도적 기독교”로 탈바꿈을 했다. 우찌무라는 에비나 교회를 비판하는 나머지 “무교회”를 선언하고 교회 없는 교회로 전환했다.

한일합병에 있어서 에비나는 팽창신학으로 생각하여 조선에 신도적 기독교를 심어 일제 강점기에 강한 교단이 되어 조선인을 일본인화 하는 정신교육에 앞장섰으며 그의 교회는 친일양성소로 변했다. 당시 친일파는 모두가 일본구미아이교회(에비나단조교회) 신자들이었다. 쇼와천황을 위한 신사참배도 일본구미아이교회가 앞장섰다.

한편 김교신의 무교회는 일본 구미아이교회를 대항하는 교회로 전환했다. 결국 에비나단조의 신학사상이 우찌무라 간조의 신학사상의 싸움이 조선에서 치열하게 일어난 것이다. 패전의 우찌무라의 사상과 김교신의 조선무교회는 지금도 두 분의 숨소리를 들을 수가 있지만 에비나 단조의 조선 구미아이교회는 패전에 앞서 망하고 조선의 그 어느 곳에서도 그 존재의 자취를 찾기란 매우 어렵다. 일본에서는 해방 후 구미아이교회의 잘못을 깨닫고 회계운동과 더불어 구미아이교단에서 일본기독교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오늘날 일본은 오랜 기독교역사에 비해 기독교인의 비율이 제일 낮은 국가가 되었다.



## 【参考文献】

1. 김문길 「근대일본기독교와조선-에비나단조사상과행동-」 明石出版社.1998.6.24
2. 김문길 「쓰다센과 조선」 일본세계사상사 출판 2003. 3
3. 김문길 「일제통치하에 있어서 조선무교회의 양상고찰」 - 김교신과 소록도- 『일본문화 학회』 제28집 한국 일본문화학회
4. 김문길 「조선무교회기독교와 사회정의-김교신 중심으로-」 『아시아·기독교 다원성』 제3호 2005. 3. 현대기독교사상 연구회
5. 김문길 「우찌무라의 평화사상과 조선무교회의 동향」 『아시아·기독교 다원성』 제2호 2004. 3. 현대기독교사상 연구회
6. 근대일본사상회 「우찌무라간조의 말」 八老印刷 소화52년
7. 内村美代子 편 「우찌무라간조 사상선서」 1집 (비전론편) 羽田書店 1949
8. 鈴木範久 「우찌무라간조 3일록」 7권 (평화의 길) 1995
9. 田畑忍 「우찌무라 간조에 있어서 평화주의 사상전개」 『기독교사회문제연구』 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
10. 新堀邦司 「김교신의 사상과 저항」 신교출판사(주) 2004

## 要 旨

内村は明治キリスト教指導者として日露戦争に反対する非戦論者であった。彼は日清戦争の時は非戦論者ではなかったが,同じキリスト教会の同僚であった海老名弾正が日露戦争のためにお祈り献金するのを間違っていると考え,戦争反対、或は非戦論を主張した。

結局、内村は教会に集まって戦争のためのお祈りと戦争のための献金の違憲性を感じ、教会に集まるのを反対しながら無教会を主張することになった。内村の無教会は戦争に反対する社会主義者の安息所になりながら日韓併合反対、世界平和主義者へとエスカレートしていったのである。

彼の平和主義思想は聖書に基づいておりキリスト再臨思想から探すことができた。特にイスラエルの亡国思想を払拭し、予言されたイザヤ先知者の言葉を多く引用して朝鮮国民達とアジア諸国家の為に多くのことを行った。

朝鮮人の中で金教臣と言う人が日本留学中に内村に会い朝鮮でも無教会が伝来してあちこちに無教会ができ、多くの信者が訪れ出していた。

一方、海老名の戦争論者も日露戦争の勝利はイエスの意思であると考え、日韓併合への賛成と朝鮮に海老名が運営していた日本組合教会が設けられた。結局、海老名の組合教会は日本的基督教を伝導したことになり天皇制国家のための国家主義的な信徒を増加させた。当時、朝鮮の信者達は海老名の組合教会に多く参加したし、信者達は殆んど親日派の人になっていった。また、内鮮一致と神社参拝に成功的に向けられるようになった。内村はアジア諸国家が戦争のない平和主義者として一生を送った。反対に、海老名は国家主義的なキリスト教主義者としてアジア共栄圏思想に貢献した事を物語っているキリスト思想研究に関わる論文である。

キーワード ; 明治期の 日本基督教, 内村鑑三 生涯,  
内村鑑三と 海老名弾正の 戦争論, 内村鑑三の 平和論,  
海老名弾正の 日本膨脹論, 韓国無教会 伝来

투 고 : 2008. 8. 31  
1차 심사 : 2008. 9. 12  
2차 심사 : 2008. 9. 27